

전남 갯벌 천일염 우수성 세계에 널리 알린다

도, 내달 1~3일 여의도서 소금박람회
최고 명품 생산지 가치·위상 등 홍보
체험존 등 3개 테마관·부대행사 다채
세계김밥축제와 연계 시너지 극대화

전남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는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국산 갯벌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2024 소금박람회’를 오는 11월1일부터 3일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6번째인 소금박람회는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한다. 전남은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천일염 생산의 본고장이자 세계 최고의 명품 천일염 생산지로서 그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실내 홍보관 및 직거래 부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스토리텔링과 보고, 먹고, 사고, 쉬고, 즐기는 오감만족 체험이 가능하도록 야외에서 소비자를 맞이한다.

또한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전남 세계김

밥페스티벌과 함께 추진, 전남의 천일염과 김, 청정 수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려 홍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박람회는 주제존, 힐링·체험존, 오락존, 3개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주 전시관인 주제존은 천일염의 역사를 연도별로 구성한 천일염 역사관과 천일염 생산지 홍보관을 운영하며, 생산·가공업체 현장 판매가 이뤄지는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준비했다.

힐링·체험존은 천일염 치유센터, 천일염 소금 사우나, 천일염 족욕 체험 등 천일염을 활용한 웰빙 체험 행사를 통해 다양

한 힐링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천일염 염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체험존과 소금을 테마로 한 천일염 카페를 운영해 소금커피, 소금빵을 이벤트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오락존에서는 소금 데드 리프팅 게릴라 이벤트, 스탬퍼 게임, 소금 발 어린이 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즉석 공연, 단!짠!버스킹, 소금백서 OX 퀴즈, 미션 수행을 통한 스탬프챌리와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참여형 레크리에이션도 진행해 관람객의 행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품·외식업계 관계자와 전남

천일염 구매 업무협약을 통해 천일염 생산 어가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남도와 영광군, 신안군이 주최하는 소금박람회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케이-솔트(K-SALT)’로 명명하고 맛과 품질,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외국인 관람객 유치와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천일염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전남도, 중국 산시성 청소년 국제 교류

26일까지 11개 시군 중학생 참여

전남도는 오는 2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중국 산시성을 방문해 ‘전남도-중국 산시성 청소년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전남도-산시성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두 지역 청소년의 국제적 이해 증진과 지역 간 우호 협력 강화를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6회에 걸쳐 345명의 청소년이 교류에 참여했다.

이번 산시성 방문 국제교류 행사에 참가한 전남 청소년 25명은 지난 2023년 9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1개 시군 21

개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됐다.

전남 청소년은 산시성 청소년과의 문화 교류 활동, 역사적 명소 탐방, 현지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산시성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상호 우정을 나누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이뤄진 전남과 산시성 청소년의 만남이 두 지역 간 우호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남 청소년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보건환경연, 아파트 건설전 교통소음 평가

올해 승인단계 10개 단지 ‘적합’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예측소음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

22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 후 교통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원 소음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해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의뢰한 사업계획 승인 단계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매년

예측소음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예측소음평가는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방음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형과 교통정보를 3D 모델링 프로그램의 가상공간에 적용해 실제 거주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음도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올해 예측소음평가 결과, 실외소음도 기준치 65dB(A)를 넘는 곳은 없었으나 건축 후 기준치를 넘을 우려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도로 포장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개발공사, 여수 죽림1지구 토지 공급

전남개발공사는 여수시 소라면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59필지(준주거시설용지 26필지, 상업용지 33필지)를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에 9만8000㎡, 계획인구 약 1만4000명 규모로 조성되며, 여수시청 5분, 여천역(KTX) 12분, 여수산단 단지까지 15분내에 자동차로 이동이 가능해 핵심 직주 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중 ‘관기제(죽림저수지)’변 특화거리 D2블록 준주거시설용지는 죽림저수지 조망이 가능하고, 1층에 노천카페를 설치할 수 있어 향후 여수 시민들의 음식·카페문화거리로 형성돼 지역명소로 자리 매김될 전망이다.

또한 상업용지는 약 6000세대의 죽림1지구 중앙에 위치한 핵심필지로교통이 용이해 기존 구도심의 상권을 흡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전부터 많은 실수요자

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입찰은 온비드 입찰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이뤄지며, 준주거시설용지 공급일정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12월2~5일) △개찰 및 낙찰자발표(12월6일) △계약 체결(12월17~19일), 상업용지는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12월9~12일) △개찰 및 낙찰자발표(12월13일) △계약체결(12월17~19일)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www.jndc.co.kr) 분양공고를 참고하거나 분양보상처(061-280-0642, 0649)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전남개발공사는 원활한 분양정보 제공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지구 인근 분양 홍보사무실을 11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현장 확인과 대면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홍보사무실을 이용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장배 미용경기대회

제34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기대회 및 전국뷰티페스티벌이 22일 광주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판타지 메이크업 부문 참가자들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북카페 운영

5·18 사적지 전일빌딩245 1층
역대 노벨문학상 작품도 비치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전일빌딩245 1층에 ‘소년이 온다’ 미니북카페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마련한 북카페에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희랍어 시간’, ‘그대의 차가운 손’ 등 30여권을 비치해 시민들이 작가의 작품세계

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르한 파무크, 아니 에르노, 압둘라 자크 구르나, 페터 한트케, 루이스 글록 등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도서도 비치해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작가 한강은 광주 중흥동에서 태어나 효동초등학교를 다녔으며,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특히 ‘전일빌딩245’는 소설 ‘소년이 온

다’의 역사적 배경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적이 있었던 장소이자, 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 시민군이 저항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소년이 온다’ 미니북카페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작은 공간”이라며 “군부독재에 용감히 맞서 싸워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이곳에서 작가의 작품세계를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마련

25일 야외마당서 문화 프로그램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가을밤의 이야기, 멜로디와 역사·문화가 교차하는 시간’을 25일 오후 2시부터 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개최한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전남대학교 지역어문학 기반 창의융합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단(BK21 FOUR)이 함께 한다. 지난 1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광주지역 역사·문화 연구의 결과와 지역문화 역량을 보여주려고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전시, 인문학 강연, 국악·팝페라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시는 ‘이야기로 만나는 지역어, 지역민의 삶’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기획전이 열린다. 양동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광주지역 일상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조사의 결과물을 스토리텔링해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지역어 어감사전’은 일상 속 지역어를 소개하며, 요즘 유행하는 ‘사투리 모의고사’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다.

정민구 전남대 교수는 “가을밤, 시로 읽

는 역사’를 주제로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강연한다. 이어 ‘가을밤의 우리소리와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인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무료이다. 문의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062-613-5364)으로 하면 된다.

임찬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전남대 BK21 교육연구단과 함께 사라져가는 지역어와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뜻깊다”며 “시민들이 지역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체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